

# 전북 지자체 '우리고장 역사찾기' 활발

### 고창군, 최고·최대·최초·최다 기록 '고창기네스' 선발 이어 남원시도 40년 역사 사진·영상 담은 '춘향찰각' 홈페이지 공개

전북 지자체들이 지역 역사 찾기에 나섰다. 순창군에 이어 고창군이 최고·최대·최초·최다 기록인 '고창기네스' 찾기에 나섰다. 남원시는 40년 남원 행정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영상 아카이브를 마련했다.

고창군이 고창 역사 찾기 일환으로 '고창기네스'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은 올해 처음으로 '고창기네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역 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고 홍보에 나섰다. '고창기네스' 신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고창기네스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집중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고창군에 접수된 '고창기네스' 건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33건이다.

공음면 이종근씨는 "고창군에서 최고·최초·최대 등 '고창기네스'를 선별한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말하면서 '최대의 도시 보유자(약 3만여원)'로 고창기네스에 신청했다.

또 한 나무에 4000송이가 열리는 도덕현씨의 포도나무, 최다 자격증 보유자, 가장 오래 재직하는 이장, 가장 오래된 이발관 등이 속속 접수되면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창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기네스 자료들은 우선 행정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로 선정한다.

고미숙 고창군 군정홍보팀장은 "'고창기네스' 선발 작업은 고창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기네스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남원행정 40년 발자취를 사진·영상 아카이브에 담았다.

남원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행정의 모든 사진·영상자료를 담은 '춘향찰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남원시는 쌓아둔 아날로그 사진과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그 이후에 모아둔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카이브(기록 보관소)작업을 지난해 2월부터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창고와 서고에 쌓아둔 시의 행정자료는 사진자료 20만장과 비디오 테이프 1000여개, CD 200여개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신문 스크랩 등



고창기네스에 접수된 4000송이 포도나무.

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해 시의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홍보관리 시스템인 춘향찰각을 구축했다.

춘향찰각의 구축으로 습기와 화재, 분실로 자료의 훼손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 안전한 자료의 보관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많은 시민들이 추억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춘향찰각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 다른 기록물 아카이

브인 남원다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배너를 마련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귀중한 남원시 행정자료를 쌓아두기만 하는 수동적인 보관으로 자료의 능동적 활용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번 춘향찰각의 개통을 통해 다양한 곳에 남원의 과거가 활용될 것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시 예쁜 '미아방지 팔찌' 지급한다



순창군이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 팔찌' (사진)를 지급한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 아이의 정보도 기재돼 있어 부모는 물론 아기에 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미아방지 팔찌는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자녀 출생에 축하의 의미를 더하고 함께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팔찌에 NFC(근거리무선통신) 태그가 탑재돼 부모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에 이름, 연락처 등 아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NFC 기능을 통해 아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미아방지에 효과적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로드킬 동물사체 연중 수거 처리 군산시, 주·야간 전화 연락 당부

군산시는 도로 위 동물 사체를 24시간 연중무휴 수거하는 '로드킬 처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평일 주중과 토요일 오전 시간은 수거처리가 되지만,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익일 업무시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뒤따랐다.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전북 도내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수거처리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로드킬 처리는 주간 국번없이 120번, 야간 및 공휴일 당직실(063-454-4222)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비 지원 익산시, 가구당 5만원 한도내

익산시는 다문화가족에게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운송비 지원은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필품이나 익산의 특산물을 보낼 때 소요되는 국제 운송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다문화가족 1가구당 5만원 한도의 요금을 지원하며 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해 총 이용요금의 10%를 추가 할인해준다. 국제운송비 지원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익산역4층)에서 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농기계보험 가입비 지원 남원시, 80%까지 상향 조정

남원시는 농기계보험 가입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80%까지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부담금은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졌다.

남원시는 올해 1000대 이상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교통사고와 도난, 수리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위자료, 사망 유족급여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대상자는 연중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73대의(전체보험료 90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했고, 63대의 농기계사고로 인해 3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 및 신체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이라며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농업기계 사고 등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논에 벼 대신 사료용 고품질 옥수수 재배하세요”

### 정읍시, 올해 시범사업 추진 쌀 수급 조절·조사료 확충 효과

정읍시는 논에 벼 대신 사료용 고품질 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쌀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풀 사료를 생산해 수입 풀 사료 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한 일석이조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목표인 풀 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축산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수량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닭고기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옥수수 수확 시 발생하는 곰팡이병과 독소 등으로 인해 가족 먹이가 오염되어 장기저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일리지 생산 시 변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젖산균 생성 균주를 접종한다.

젖산균 생성 균주 접종을 통해 품질 좋은 사일리지 생산은 물론 장기간 안전저장을 도모할 수 있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대체 사료작물의 안정적 재배 확대로 쌀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재고 쌀의 보관 비용이 절감되며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됨으로써 농가 전체 소득에 이바지할



정읍시가 논에 벼 대신 사료용 고품질 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옥수수 재배면적은 10ha로 1ha당 50여t 이상 수확이 가능하며 발제배에 비해 가뭄 피

해를 덜 받아 많은 수량과 높은 품질을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